

#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시민 70% "알고있다"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시민 70% 이상이 알고 있으며,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시 누리집 시민소통광장 남녀 시민 패널 6천600명을 대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질문은 '여수만 르네상스 인식도'와 '5개년 추진과제 적절성',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등 총 11개로 1천45명의 패널이 답했다.

먼저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잘 알고 있다'(20%)와 '매우 잘 알고 있다'(11%)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73%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사업 적절성 "긍정적 평가" 78%

핵심목표 '관광자원 개발' 1순위... '일자리' 최우선 과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와 '전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5개년 추진과제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21%)

와 '약간 그렇다'(18%) 등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여수만 르네상스 핵심 목표로는 '관광자원 개발'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산업 발달'(20%), '기후 환경보호'(18%), '정주여건 개선'(15

%), '일자리 창출'(14%), '문화 예술기반 확대'(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문제'(38%)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4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를 개

최하는 등 여수의 미래 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신규 과제 발굴과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 설문조사를 번거로워 실시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김전선 기자



광양시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집와이어 개장에 앞서 명칭 공모를 통한 관광 브랜드에 나섰다. <광양시 제공>

## “섬진강 망덕포구 집와이어 대국민 명칭 공모”

광양시 내달 4일까지 접수...11월 관광객 선배

광양시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공중하강체험시설 개장에 앞서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한 관광 브랜드에 나섰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이하 집와이어)은 망덕산과 배알도수변공원 간 888m를 잇는 집와이어 4인승과 12인승 모노레일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공모대상지의 공간·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망덕포구 집와이어의 조성 의미, 목적, 상징을 전달하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독특한 명칭을 선정해 명명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10월4일까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명칭 공모전 신청서 ▲개인 정보동의서 등을 광양시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10월11일까지 ▲1차 자체 심사를 통해 5개내외의 명칭을 선정해 시민선호도조사 ▲2차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최우수(1명) 3만원 ▲우수(1명) 2만원 ▲장려(3명) 10만원 ▲참가상(1명, 무작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며, 10월 중 개별 통보하고 시상금은 별도 시상없이 개별 발송할 방침이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명칭은 수정 보완될 수 있고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섬진강 망덕포구 집와이어는 아름다운 섬진강과 하동, 남해, 여수 등 남해안을 한눈에 조망하면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며 “포구와 섬, 수변공원의 트리아앵글 구도를 완성할 집와이어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섬진강 망덕포구 집와이어의 광양시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안 승인, 위탁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광양=양홍록 기자

## 장흥군, 신규 전입자 정착 돕는다

내달 15일 장흥 바로알기 투어 실시

장흥군은 22일 “오는 10월15일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는 관내 명소 탐방, 전입자 간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신규 전입자의 장흥 정착을 돕고자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으로 그간 전입자 1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장흥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전입자 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한 게 좋았으며 만족감을 표했다.

올해는 ▲정남전편백숲우드랜드 ▲이정준 선생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지 선학동마을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와 추모역사관 등 관내 관광 명소와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 다도체현 ▲역불산 산림욕장 황토길 맨발걷기 ▲편백수 족욕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는 2023년 이후 장흥군 전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총 25명 내외이며 신청 접수순으로 확정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새롭게 장흥군의 가족이 된 신규 전입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입자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곡성군, 축산 악취없는 마을 조성 '박차'

총사업비 12억 확보...연내 사업설계

곡성군이 '2025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악취없는 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4월 공모 신청 후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곡성군은 가축분뇨 자가 처리 비율이 60% 이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개별 농

가의 가축분뇨 적정 보관과 처리 역량을 키우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생산해 농지에 활용하는 순환농업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은 연말 내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6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 구례군, '탄소중립 휴 살리기 박람회' 성료

휴 과학·예술·문화적 측면 선배...탄소중립 선도 지자체 위상 적립

구례군은 22일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탄소중립 휴 살리기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휴를 살리고 미래를 구하는 구례’를 주제로 주제관(사진)을 운영했으며 건강한 휴이 생명을 숨쉬게 하고 모두의 꿈을 키우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중립 휴 살리기를 통해 새 시대를 열고 미래 삶의 잠재 가치를 찾아 행복한 구례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주제관은 휴이 우리의 생태계와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명하며 휴이 과학·예술·문화적 측면을 총 7개의 관으로 나눠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휴길을 걸으며 인포그래픽과 체험 전시물을 통해 휴의 중요성을 배우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구례군은 이번 주제관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고, 생태농업 경제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기후 위기 대응의 다양한 모델을 선보여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주제관 운영을 통해 휴의 소중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례군의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휴 살리기는 곧



미래를 살리는 일이므로, 휴의 가치를 되새기고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담양군 월산면, 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민관협력 구심점 역할 기대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5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하반기 어린이 체험활동 지원사업 세부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운영회회의 정례화와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 발굴, 특화사업 등을 논의하며 제6기 출범의 각오를 다졌다.

김민지 월산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용우 민간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협의체 운영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고흥군, 추석 연휴 방문객 1.6배 증가...5일간 13만명

야간미디어아트 행사·드론쇼 등 인기

고흥군은 22일 “이번 추석 연휴 5일간 총 13만여명의 관광객이 고흥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 평균 2만7천여명이 방문한 수치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 1.6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연휴는 고흥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행사가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었다. 각 명소에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경관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와 녹동항 특별 드론쇼(사진)가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진 빛과 색의 조화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는 평이다.



고흥의 여러 관광지도 활기를 띠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등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명소들은 명절을 맞아 고흥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동

안 많은 방문객이 고흥을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흥의 매력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광 자원을 개발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 기자